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 10년

- PC통신에서 웹2.0까지

A Meta-Analysis of Internet-Related Research in Scholarly Journals in Communication

저자 (Authors)	김은미, 나은경 Eun Mee Kim, Eun Kyung Na
출처 (Source)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 2008.03, 243-288 (46 page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5(1) , 2008.03, 243-288 (46 pages)
발행처 (Publishe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055274
APA Style	김은미, 나은경 (2008).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 10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1), 243-288.
이용정보 (Accessed)	아주대학교 202.30.30.*** 2017/04/17 10:1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 10년 : PC통신에서 웹2.0까지

김 은 미*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나 은 경**

한국언론재단

요 약

컴퓨터와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소위 인터넷 현상이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제까지 인터넷 관련한 매체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추이를 커뮤니케이션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반영하여 연구해 오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평면적으로 기존의 연구동향을 개괄하는 것을 넘어서 탐색적이거나 기술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 그리고 그것들이 속해 있는 현실세계의 맥락이 어떻게 서로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 문화 속에서 인터넷 현상이 어떻게 진화되어왔는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학술지에 실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동향과 실제 한국사회 안에서 인터넷

* eunmee@yonsei.ac.kr

** eunniena@empal.com

매체의 실질적인 활용 및 진화 추이와 함께 개괄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연구 동향과 매체환경이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커뮤니케이션학 및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니는 함의를 논의했다.

키워드: 언론학, 인터넷, 이론과 방법론, 메타분석

1. 서론

커뮤니케이션학의 기원은 멀게는 고대 그리이스의 수사학적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사회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인간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들이 융합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들어 본격화된 사회과학적 전통 속에 커뮤니케이션학의 정립은 이러한 기원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의 상업화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전자매체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매스커뮤니케이션 현상과 더불어 진행되어 왔고 매체를 매개로 한 집단과 공중의 커뮤니케이션이 연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 한국에 커뮤니케이션학이 소개된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는 오랜 동안 매스커뮤니케이션학과 동일시 되어왔다.¹⁾ 그런데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기본적으로 전자적인 매개체와 산업 기반

1) 강준만 (2006)은 한국에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비해 발달돼 있지 않은 것은 인간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지식이 국민 모두의 암묵지로 존재하여 사회적 차원의 분석으로까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제시한다.

을 전제하고 있어서 어떤 통합적인 이론이나 방법론적인 일관성을 토대로 학문적 영역이 형성되기 보다는 하나의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영역이 형성되었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매체와 산업기반이 변화하면서 연구의 추세도 이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여 왔다. 이론이나 방법론의 진화보다는 기술이나 산업 기반의 동향이나 진화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나 연구문제가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이 전면화 되면서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커뮤니케이션학분야가 이러한 기술적 변화, 즉 매개체의 변화, 에 보다 더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방법론적 연구는 언론학 분야에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다양한 주제와 대상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그 지평을 검토해보는 것과 이를 타 분야와 비교해보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언론학 분야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피는 두 번째 의미는 기술의 발달과 이에 대한 사회적 조응, 그리고 이를 조망하는 학술적 활동이 얼마나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을 하나의 매체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인터넷을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양한 양식의 매체를 담는 새로운 플랫폼이며 이들의 결합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연구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인간 고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성찰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분야의 기술과 산업의 발달 추이와 함께 이것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거시적으로 볼 때 기술의 변화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학문적 활동이란 현상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는 역으로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쳐 대상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학술지에 실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 연구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동향을 실제 한국사회 안에 인터넷 매체의 활용과 진화 추이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를 전후한 10년 동안 우리사회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개괄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연구 동향과 매체환경이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면적으로 기존의 연구동향을 개괄하는 것을 넘어서 탐색적이거나 기술의 발달과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어떻게 서로 조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앞으로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1) 연구 동향에 대한 기존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일정한 주제에 관한 메타분석의 전통은 오래되었다.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모두 집대성하여 분류한다든지 (예컨대 McGuire, 1986, Emmers-Sommer & Allen, 1999) 혹은 미디어와 폭력에 관한 연구들을 함께 분석하여 두 개념 간의 연관성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연구들 (예컨대 Paik & Comstock,

1994)이 있어왔다.

종합적 메타분석의 접근을 채택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인터넷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은 김과 위버 (Kim & Weaver, 2002)이다. 그들은 연구 주제, 방법, 그리고 이론적 초점의 명료성 여부에 따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 초록 (Communications Abstracts)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양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메타분석에도 영향을 주었다. 5개 년에 걸쳐 인터넷에 대한 연구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법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나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나 양적인 연구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자체의 특징이나 역사적 혹은 철학적 기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을 중심으로 이용의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이론들이 연구에 직접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인터넷 관련 연구 영역이 기존 매체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오택섭 (1997)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기존 연구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혁신성과 기존 커뮤니케이션 양식과의 차이에 초점을 둘 것인가는 단순히 결론 내릴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 외에 국외 연구들은 보다 인터넷 관련 연구 안에서 보다 세부적인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과 젠더에 관한 연구만을 본다면 (Royal, 2005), 특정 국가를 맥락으로 살핀다면 (Chung et al., 2005; Crowley, 2002; Kluver & Yang, 2005) 혹은 원거리 교육과 같은 아주 세부적인 응용 영역의 연구를 종합한 연구들이 있다 (Allen et al., 2004).

국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메타분석한 것으로는 우형진(2005),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의 연구와 함께 보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에 국한하여 분석적 메타분석을 시도한 황용식 (2006)의 연구가 있다.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간 언론학 분야 주요저널에 실린 13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적용 이론, 연구방법, 분석대상, 관심미디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을 전후하여 미국에서의 인터넷 관련 연구가 수용자의 이용을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비해 이들의 분석 결과는 한국에서의 인터넷 연구가 아직 매체 중심적인 테마에 머물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이론보다는 세부개념에 초점이 두어지고 활용의 측면에서 미시적인 담론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매체에 치우쳐 현상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연구전통의 관성적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 서베이 등 양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은 연구방법 면에서의 혁신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존 연구의 방법들이 인터넷의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연구 방법인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은 없으나 이 또한 향후 연구자들이 주목하여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은 동의한다.

우형진 (2005)은 연구대상을 넓혀 1995년부터 2005년까지의 245개 연구논문을 메타분석하였다.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의 분석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는 연구비의 출처와 연구자의 태도를 포함하여 이들 연구 결과가 생산되는 배경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인터넷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현상의 기술이나 동향 파악이 지배적이고 이론적 접근이 미미하다는 점,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은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의 연구와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다. 우형진

(2005)의 연구가 별도로 밝혀낸 것은 인터넷에 대해 가치유보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연구가 지배적이라는 점이었는데 이는 미시적인 담론에 치우쳐있다 (황상재 박석철, 2004)는 지적과 유사하다.

이 외 저널리즘 영역에 국한 한 황용석 (2006)의 연구는 이상 두 편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적 메타분석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연구주제와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는 이상의 연구와 유사하나 논문의 메타분석을 바탕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정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분석결과를 성찰의 기회로 삼아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직 관점에서의 저널리즘 연구의 전통이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커뮤니케이션학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의 동향을 갱신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 더불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매체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나를 함께 검토하면서 매체환경의 변화와 이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활동이 커뮤니케이션학 영역 내에서 어떻게 연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관련 매체 환경의 변화

지금 시점에서 인터넷 관련 연구라 하면 흔히 떠올리게 되는 것은 월드와이드웹 (World Wide Web) 형태의 웹사이트들일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새롭게 태어나고 갱신되는 새로운 디지털 통신기술과 인터넷 서비스를 따라가기에도 심심할 틈이 없는 나머지, 그러한 형태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생기기 이전에도 유사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그 앞선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니케이션의 문화가 현재를 비롯한 이후의 인터넷 문화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는지 등의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 과거에 대한 이해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어쩌면 필수적인 일이다. 가령, 2007년도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역할은 어떠할까, 2002년도 대선에서 그랬던 것만큼이나 새로운 방향으로 시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까에 이목을 집중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적인 힘이 어느 시기에는 가능하고 어느 시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이유라든지, 2002년을 설명할 수 있었던 '특수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유형이 2007년에는 적용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인터넷을 단순히 하나의 '매체(medium)'로서만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 또는 '사회체계(system)'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관점의 근거들은 몇몇 학자들의 생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Flichy, 2002 참조). 일찍이 포스트만(Postman, 1998)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은 기존 사회에 무엇 하나가 그저 더해지는(additive) 것이 아니라 전 사회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만큼 생태학적(ecological)인 변화라서, 새로운 기술로 인해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부분도 반드시 생긴다고 경고할 정도로, 사회와 문화는 발전하는 만큼 지불해야하는 대가가 있다고 보기도 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그 자체의 이용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전체 사회의 흐름과 문화의 양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일례로, 메로위츠(Meyrowitz, 1997)는 구술적 소통이 인쇄 문자적 소통으로 발전하고 다시 전자적 소통으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과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이'의 관계와 '낯선 사이'의 관계를 형성해내며 인간이 모이고 집단이 조직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구조를 살펴본 바 있다.²⁾ 여기에 그 이후의 10년에 해당하는 시

기를 덧붙여 본다면, 단연 인터넷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을 통한 현대의 시기가 네 번째 시기로서-메로위츠(Meyrowitz, 1997)의 논리를 빌어- '탈근대화가 더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전의 확고한 정체성과는 또다른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흩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부족화(tribalization)'가 느슨하게 진행되는 복합적인 시기라고도 생각된다. 이 네 번째 인터넷 시기의 사회는 공교롭게도 첫 번째의 구술사회의 속성과 두 번째의 인쇄문화 사회의 속성이 뒤섞여 나타나면서도 세 번째 '영상 중심의 전자매체 시기'의 멀티미디어 문화적 속성까지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를 따로 떼어내어 인터넷 발전의 역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것이 더욱 뚜렷하게 발견되는데, 인터넷의 초기 및 그 이전 단계인 PC통신의 문화는-한국의 인터넷 문화 역사 시기에 따르면 PC통신 시대부터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텍스트 중심적인 문화로부터 구술 문화가 역행적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저널리즘의 전성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인터넷이 멀티미디어화되면서 구술적 텍스트 중심의 문화가 멀티미디어적 문화에 다시금 밀리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점³⁾이, "역사는 반복

-
- 2) 전통적인 구술사회에서는 '경계(boundary)'가 명확해서 '친밀한 사람들' 끼리 모이는 작은 세계와 그 외의 모두는 '낯선 이들'로 구성된 미지의 세계로 구분했다면, 인쇄기술이 발명된 이후, 근대의 인쇄 사회에서는 이전 시기에 명확하게 구분되던 집단 경계가 허물어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국민국가 중심의 커다란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안에 사회계층을 둘러싼 내부적인 경계들이 형성되고 연령, 성별, 계급, 인종 등의 정체성도 중요하게 되었다 한다. 그러던 것이 TV, 라디오 등의 멀티미디어적 전자매체가 발달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 한 국가 내 계급집단들 사이 등 정체성 중심의 그러한 경계들은 더욱더 불분명하게 상호침투적으로 무너져내려 지구촌 사회라는 전지구적 친밀성을 형성하는 탈근대적인 사회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 3)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옹(Ong, 1988)이 TV와 전화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변화를 "제2의 구술성(second orality)"이라 본 통찰이 인터넷 발전의 역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된다”는 말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하다.

(1) 인터넷 관련 매체환경의 시기별 특징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러한 역사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한국의 인터넷문화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 1〉 한국 인터넷 관련 시기 구분

1기('85~'95년까지)	PC통신의 시대 (텍스트 기반)
2기('96~'98년까지)	PC통신의 활성화 극대 이후,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3기('99~'03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저널리즘의 전성기,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의 출범
4기('04~현재)	일상화/대중화, 상업화, 다양화, 개인화의 시기 (멀티미디어 기반)

기술적으로는 '85년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더 일상화되기 시작한 때로 하자면 '88년도에 하이텔의 전신인 케텔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PC통신의 시대가 막을 연다. 이후의 10년에 걸쳐 '95년에 이르기까지 PC통신은 그 활성화의 정도가 극대화되면서 한국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 낸다. PC방의 등장 및 성장,⁴⁾ 리니지의 성공을 통한 게임산업의 가능성 인식, IT산업에 기반한 벤처기업 열풍, '번개'와 '정보'를 통한 동호회 활동의 확산, 낯선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는 방식에 변화, 등 등 이 시기에 인터넷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였고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아직은 주로 학교와 연구소 중심으로 그 이용이 한정되어 있었다.

4) 1998년 PC방이 전국 각지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게임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다. 1997년까지 수십 개에 지나지 않던 PC방이 2001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3만 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윤선희, 2001).

인터넷의 시작 연도는 '95년 초 정도가 한번의 분기점이라고 본다. '95년 이전(학교 연구실의 소수)과 이후(모뎀으로 가정집/사무실에서 인터넷 연결)의 이용자 규모가 확실히 분리되고, 두루넷 케이블모뎀을 시작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일반화된 '98년-'99년부터가 또 확실히 분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제1기가 PC통신의 시대였다면 이후 '96년에서 '98년에 이르는 기간은 한때 한국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지배하던 PC통신이 정체되면서, 인터넷 이용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 기간이 제2기에 해당한다.

3기는 '99년에서 '03년에 이르는, 온라인커뮤니티 및 인터넷 시민저널리즘의 전성기라고 명명할 수 있겠다. 이 시기에 PC통신 시대의 영향을 받은 인터넷 '게시판' 문화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PC통신을 인터넷으로 옮겨놓았다는 평가를 얻는 다음(Daum) 카페를 필두로 하여 게시판과 채팅 중심적인 온라인커뮤니티가 성행하게 된다. 즉, PC통신의 텍스트 중심적인 문화가 인터넷 상의 게시판 커뮤니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확고한 정체성에 기반한-다시 말해, '회원가입'과 '회원등급' 등이 명확히 위계지어진 폐쇄적 커뮤니티 문화 그리고 실시간 채팅문화를 활성화시킨다. PC통신문화에 뿌리를 둔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반들이 쌓여 초기 인터넷 문화에서 기존 언론에 대응할만한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의 인터넷신문이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2002년 각종 사회적 균질력까지 지니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젊은이들(지금의 386세대)이 중심이 된 초기 인터넷 문화는 명확하게 정립된 룰이 없었고 그 파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며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였다.

YS정권 말기와 DJ정권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03-'04년 이후 지금에 이르는 4기의 시기인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새로운 현상이라거나 특수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이용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계층의 일상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앞선 시기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디지털 기술의 융합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웹 상의 모든 부문에서 상업화도 동시 진행 및 심화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인터넷은—앞서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전자매체와는 달리—미디어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통찰(Flichy, 2002 등)이 더욱 적절해진 시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이용을 한다아니다가 결정적인 요소가 더 이상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사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넓은 범위의 사회체제나 다름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인터넷 발전의 역사와 사회적 흐름에 대한 이와 같은 시기 구분에서 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효하고도 결정적인 특성들 중 주요하게 도드라지는 것을 꼽는다면 역시 ‘게시판 문화’와 ‘온라인커뮤니티 문화’인데 이 두 가지의 특성이 모두, 인터넷의 선사격인 PC통신 문화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두 가지 특성들은 인터넷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2) PC통신 기반의 초기 인터넷 문화

① 전자 게시판과 온라인 저널리즘

게시판(Bulletin Board System)은 애초에 미국사회에서 민간인들에 의한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대형 컴퓨터가 아니라 소형의 개인용 컴퓨터에 의하여 운용되는 등 철저하게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⁵⁾ 이것은 그들의 전자 게시판이 우리가 아마추어 무선사(HAM)들

5) 특히 1983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한 전자 게시판 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 게시판

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고귀한 아마추어 정신(amateurism)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한국사회의 전자게시판 문화는 PC통신에 소위 '논객'들이 형성되던 시절에 탄생했다. 인터넷의 확산 이전에 한국사회에는 PC통신이 구축해놓은 독특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있었으며, 이는 '02년의 사회정치적인 상황과 더불어, 한국적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 발판이 될 수 있었다. PC통신 초기 활동자들의 특이성의 근원이 무엇인지 분석할만하다 생각될 정도로 그 시절 게시판을 통해 생산되는 토론의 질적 우수성과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사회적 담론 형성의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존의 언론매체에 대한 불만/불신과 대안매체에 대한 갈망 등이 얹혀 기성 언론을 비평하는 내용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98 단지일보를 시작으로 '00년에 오마이뉴스의 창간, '01년 서프라이즈의 시작 등 '인터넷신문' 시대가 열렸고, 한동안 우후죽순격으로 '웹진(인터넷잡지)'의 창간 붐이 일기도 하면서⁶⁾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PC통신문화에 뿌리를 둔 소위 '논객' 중심의 논리적인 자기주장이 강한 글들이 파급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한국사회의 온라인시민저널리즘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결국 이러한 사회문화적 기반들이 쌓여 초기 인터넷 문화에서 기존 언론에 대응할만한 인터넷신문의 정치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2002년과 2004년 각종 사회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한 집단적 토론과 동원의 힘까지 지니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인터넷신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낮은 인지도

문화는 민간의, 민간에 의한 '통신의 풀뿌리 운동(grass root movement)'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일찍이 전자 게시판을 만들었던 개발자는 전자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게시판에 접속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남김없이 전수하는 정도의 관대함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6) 당시 크고 작은 '웹진'들이 200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고 한다.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영세한 인터넷신문과 웹진 등이 많이 사라지면서 데일리 클릭이나 아이뉴스24 등의 기업화된 거대 웹진만이 생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이른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의 인터넷이 일상화/대중화되면서 상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② 온라인커뮤니티, 채팅, 그리고 포털 사이트

PC통신 시대 당시의 게시판 토론문화는 다음(Daum)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종인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내어 상당부분 흡수했으며, 지금의 블로그들을 통해서 대부분 계승/발전되고 있고, 유머게시판은 '웃긴대학'이나 '다씨인사이드'로, 그리고 Q & A 게시판은 지금의 '지식인' 형태의 정보검색으로 흡수되는 등 근래의 인터넷 문화를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특징짓고 있는 각 포털사이트에서도 일정 부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동호회 기능은 다음의 카페나 각 포털의 클럽, 또 수많은 매니아 커뮤니티들로 이어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동호회의 가능성이 텍스트 중심의 채팅과 게시판 글쓰기를 통해 구현되었다. 즉 PC통신 문화의 잔재가 월드와이드웹 시대의 초기 온라인커뮤니티로 이어져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인터넷 커뮤니티들은 이후의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독특한 형태로 상당부분 틀지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기술적인 측면만을 봤을 때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PC통신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으나 당시 충성도 높은 이용자들이 이룩해놓은

7) 커뮤니티 사이트,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용어를 정착시킨 유래는 하워드 라인골드가 세계 최초의 사이버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WELL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담은 "Virtual Community(1993)"에서였다. 이 책에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여러 사람이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현상을 '가상 커뮤니티'라 칭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심지어 이메일 교환까지 모두 커뮤니티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참고로, WELL은 IT 전문가들이 주로 활동하던 커뮤니티로, 다양한 주제를 토의하는, 일종의 비영리 게시판 서비스였다.

커뮤니티 문화는 여전히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었다. 열성적인 PC통신 초기 활동자들은 당시의 문화를 다시 이어가고자 다음(Daum)으로('97-'98년), 프리챌(freechal)로('99-'01년), 또는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초기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한다. '02-'03년 이후 싸이월드나 블로그 등의 개인화된 사회연결망 사이트들과 포털사이트들이 최근까지 성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의 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추구해야 할 '대의'가 없어지고 '정체성'도 중시하지 않게 되면서 '개인성'을 표방하며 집단을 이루지 않고도 개인들끼리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웰만(Wellman, 2001)의 표현을 응용해 보자면—"파편적인 사적 네트워크"를 느슨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웰(WELL)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미국의 게시판 서비스였던 유즈넷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미국판 PC통신 서비스인 아메리카 온라인(AOL), 컴퓨서브(CompuServe)까지도 게시판이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사회가 그러하듯 어느 한 서비스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 산발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후 이러한 미국의 게시판 문화는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ICQ)과 결합되는 문화로 발전한다. 불특정 다수와 커뮤니케이션하다가 특별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과 직접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발판은 PC통신 동호회였다.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내 최초의 '가상 커뮤니티'라 할 수 있는 PC통신 동호회로부터 지금은 보통 명사화돼버린 '정모(정기적인 모임),' '번개(오프라인 모임)'라는 단어들만 만들어지게 된다. 또한 동호회의 정기채팅은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한 방에 들어가 집단적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누는 채팅방 서비스가 매우 활성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의 경우,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 메신저를 통해 1:1 커뮤니

케이션으로 발달한 미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PC통신 동호회를 그대로 웹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 카페가 만들어지고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 인터넷에서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먼저 시도한 것은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미국은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정착이 초기에는 쉽지 않았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성화되고 있는데 (Facebook, Myspace 등) 반해, 한국은 전혀 어려움 없이—오히려 문화적 상호작용(synergy)의 결과—PC통신의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배태되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싸이월드라는 다음 카페의 아류적인 서비스가 등장했고 미니홈피라는 것을 만들어 지배적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 또 블로그 등의 서비스가 새로이 인기를 끌면서 근래의 사회연결망 사이트의 확산과 유행으로 이어지게 되며 각종의 포털사이트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그대로 이어받아 흡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인터넷 관련 매체환경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의 동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PC통신 및 인터넷 관련한 매체환경의 실질적인 변화에 따라 연구의 동향도 그에 맞추어 변화해 왔으리란 점을 직관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즉 시기별로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인터넷 관련 연구의 경향이 한국사회의 인터넷 기술/문화가 발달/확산되는 실질적인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계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칭하는 용어 자체가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왔다. 가령, “뉴미디어”가 참신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정보통신기술(IT기술)”이 주요해지는가 하면, PC통신 및 게시판을 연구하던 시절에는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이란 개념이 주를 이룬 시절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인터넷

에 더 집중하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이나 “온라인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또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이 더 적합해지기도 했다.

연구의 관심과 분석의 대상 역시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였던 바,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메일링 리스트나 유즈넷, MUD 등 이메일과 게시판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가상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나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확연하게 구분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 일방향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근래 들어서 웹2.0으로 통칭되는 기술변화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한 개인 네트워크라든지 이전의 텍스트 중심 시기보다 멀티미디어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중심 서구의 연구 경향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종류가 됐든) 대개의 뉴미디어(새로운 매체)가 하나씩 새로 등장할 때마다 초기연구에 주된 관점이 되곤 하는 ‘미디어대체이론과 적소이론’을 적용하는 이용과 충족 관점의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일견 그와 유사한 특징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PC통신 및 인터넷이 발전해온 독특한 과정을 고려해본다면 서구의 인터넷 연구 경향과 일정 부분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인터넷 현상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특징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1) 초기에는 서구의 인터넷 연구와 유사하게도 게시판 토론과 온라인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을 듯한데, (2) 2002년부터 2004년에 걸쳐서는 ‘오마이뉴스’의 대세를 필두로 해서 ‘온라인 시민저널리즘’ 또는 ‘대안저널리즘’ 등 인터넷 상의 독립형 뉴스 사이트들은 뉴스형식이나 보도방식이 기성 언론 매체의 뉴스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관심을 집중했을 것이다. (3) 시민저널리즘의 파위에 대한 열기가 가라앉을 무렵인 2005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발달한 매스미디어 중심적인 미디어 이

론들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을 것이다(예: 인터넷의 의제설정, 또는 인터넷 상에서의 제3자 효과 등). (4) 한편, 서구의 인터넷 초기 연구에서 주를 이루었다고도 할 수 있는 '유토피아 vs.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이 한국의 인터넷 연구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도 관심있게 볼 부분이다. (5) 그리고 PC통신문화에 기반 한 인터넷 문화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의 세계가 오프라인 세계와 쌍방향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점차로 융합 내지는 수렴되는 현상이 일상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면대면 만남의 영향 등과 같이 기존의 대인커뮤니케이션 연구와의 접합점들도 새로운 관심으로 등장했을 수 있다. (5) 특기할만한 점은 '90년대 중반 이후 사회과학 전반에 학문적 유행처럼 크게 번지며 파장을 몰고 온 속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라든지, 사회자본(social capital) 등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공통적 관심의 영향이 서구와 우리 학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리라는 점이다. 따라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무르익어갈 무렵에는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주로 발달해온 이 개념들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들이 급격히 증가하며, '시민성 및 시민적 태도'의 계발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을 것이다. 또한 (6) 근래에 심화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의 독식이라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현상이라든지, 상업화로 흐르고 있는 최근 인터넷의 경향 속에서 사회연결망 사이트 등 웹2.0 현상에 대해서는 상업적이고 마케팅 중심적인 관점의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리란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PC통신 및 인터넷 관련한 매체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커뮤니케이션 학계의 이러한 추정적 변화들이 실제로 연구 경향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근거가 필요하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그렇다면 PC통신의 시대로부터 포털을 중심으로 한 일상화 다양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이 인터넷연구의 흐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연구문제나 연구대상에 주목하였으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연구 주제나 방법, 연구대상의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의 동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더불어, 연구의 주제나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하였던 혁신성과 연속성 간의 조화의 문제나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2) 분석절차

이 연구는 인터넷을 연구 주제나 대상으로 한 언론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실린 논문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종합적인 메타분석의 틀을 따른다. 분석의 대상은 1998년에서 2007년 11월까지 10개년 간 한국언론학보, 한국방송학보, 언론정보학보⁸⁾에 실린 인터넷 관련 연구 총 222편을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주요 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학위논문은 학술적 수

8)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가 인터넷 관련 연구를 많이 내는 학술지이나 같은 호의 다른 논문에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에 나타난 학술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광고학이나 홍보학 분야의 경우 우형진(2005)에 따르면 전체 게재 논문의 10% 이하가 인터넷 관련 논문이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여도 추세를 검토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준의 편차가 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또한 완전한 검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상논문의 검색은 1차적으로 국내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KISS와 DBPIA)를 이용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터넷이나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논문이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아 결국 해당 학술지의 해당 기간 논문의 제목과 논문을 모두 전수조사하여 총 222편을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광고홍보학 분야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학술지를 분석한 황상재·박석철(2004)의 연구에서 해당 논문이 134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일단 양적으로 인터넷 관련 연구가 매우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2편의 논문을 2명의 연구자가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앞서 20개의 논문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사전코딩을 우선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를 논의하여 최종 분류 기준을 정하였다.

3) 분류 기준

기존연구인 김과 위버(Kim & Weaver, 2002)와 황상재·박석철(2004)의 경우 연구주제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의 분석틀을 기초로 수정한 후자의 경우 인터넷 저널리즘, 인터넷의 영향, 인터넷의 이용과 지각, 법과 정책, 경제와 마케팅, 정치, 사회문화, 역사철학, 기술, 교육, 웹사이트 평가, 인터넷연구, 국제커뮤니케이션, 기타 등 14개의 주제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물론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부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항목들이 아주 포괄적인 것(예컨대 인터넷의 영향)부터 아주 미시적인 것까지(예컨대 웹사이트 평가) 그 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일관된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동시에 지적할 수 있다.

한 편 김과 위버(Kim & Weaver, 2002)와 우형진(2005)의 경우 새

로운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해당 미디어를 연구하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위머와 도미닉 (Wimmer & Dominick, 2000)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단계 중 해당 논문이 어디에 위치지워지는가를 검토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정의와 탐구이며, 두 번째 단계는 미디어 이용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효과이며 네 번째 단계는 미디어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겠는가에 관한 논의라고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매체환경의 변화와 학술연구가 어떻게 연동하는가를 검토해보고자 하므로 이상의 접근법을 통합하여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대주제를 분류하고 각각의 대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주제 분류를 다시 시행하는 분류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머와 도미닉 (Wimmer & Dominick, 2000)의 네 단계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그 마지막 단계인 미디어 자체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별도의 대주제 항목으로 두지 않고 대신 인터넷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재해석하는 연구를 네 번째 대주제로 삼았다. 이는 미디어 자체의 개선에 관한 연구란 지나치게 정책적 논의에 치우쳐 학술적 의미가 축소되고 또한 아직 국내 학계의 상황이나 미디어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 가지 대주제에 관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자체 고유의 영역, 기술, 역사, 제도
2. 인터넷으로 인한 기존 미디어의 변화 혹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온, 오프의 비교나 관계 포함)
3. 기존 사회적 관습, 현상에 끼친 인터넷의 효과나 영향
4.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새로운 이해나 해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이러한 대주제의 분류 하에 각 4개 항목에는 해당하는 소주제들이 다 음과 같이 분류되었으며 이는 기존 연구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단 대주제 4는 성격 상 해당하는 소주제 분류를 정해놓지 않았다.

〈표 2〉 주제 분류

대주제	해당 소주제
인터넷 자체 고유의 영역, 기술, 역사, 제도	1. 기술/미디어 자체의 진화, (채택, 전파 포함) 2. 콘텐츠/ 텍스트/ 담론 3. 산업, 비즈니스 4. 사회문화 5. 법제, 윤리 6. 이용동기/ 행태 7. 이용 효과, 결과 8. 기타
인터넷으로 인한 기존 미디어의 변화 혹은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와의 관계 (온,오프의 비교나 관계 포함)	1. 저널리즘/ 뉴스(여론포함) 2. 방송영상 3. 다중매체 비교분석 4. 수용자 5. 기타
기존 사회적 관습, 현상에 끼친 인터넷의 효과나 영향	1. 정치 2. 경제 3. 사회 (여론 포함) 4. 문화 5. 통신/대인컴 6. 기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새로운 이해나 해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해당 소주제 분류 없음

연구의 대상된 관심 미디어는 블로그,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토론, 게임, 뉴스, 포털, 인터넷 일반, 홈페이지, 쇼핑, 영상/UCC, 기타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판례분석포함), 2차자료 분석 (site traffic등의 분석 포함), 서베이, 실험, 참여관찰, FGI/일대일면접/심층인터뷰, 연결방분석, 내용분석 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구

문제의 속성은 기술적이냐 분석적이냐를 분류하였다. 분석적인 연구는 현상의 인과관계나 두 변수 혹은 개념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고 기술적인 연구문제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기술한 것이다. 그 밖에는 연구자의 수를 코딩하였고 키워드로 등록된 이론 및 개념을 개방형 코딩을 하였다.

4. 연구결과

커뮤니케이션학 내에서 인터넷 관련연구는 양적으로 2001년과 2002년 사이를 중심으로 분포를 달리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표1에서 제시한 3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10% 내외의 연구가 인터넷 관련연구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전체 20%를 상회하는 논문이 인터넷에 할애되었다가 그 이후는 정체 내지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인터넷 관련 연구의 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체
3개 학보 논문 수	58	75	77	92	138	135	161	175	194	201	1306
인터넷 관련논문	2	7	10	17	35	27	30	28	28	38	222
비율(%)	3.5	9.3	13.0	18.5	25.4	20.0	18.6	16.0	14.4	18.9	17.0

1) 연구의 주제

전체적으로 분석기간동안 출간된 논문의 대주제를 네 항목으로 분류해 본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인터넷 자체의 기술, 역사, 제도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1.3%). 그 다음으로는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 (20.3%),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 (17.1%),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재조망하는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다.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터넷 자체에 관한 연구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이나 효과를 다룬 연구는 1998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한 편 기존 매체와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기에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기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다룬 연구의 경우 주로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매체와의 관계를 살피는 연구의 경우 주로 저널리즘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상에서 언급한 시민저널리즘의 전성기로서의 2000년대 초반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기의 시기에는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를 본 연구가 아주 활발하였다. 이 시기의 연구자들은 대개 인터넷을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지닌 세계가 아닌 기존의 미디어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하였다. 기존 미디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인터넷방송 / 인터넷TV에 관한 고찰(최영, 1999; 박성호, 1999), 미디어 대체가설(예: 김관규, 2000), 또는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예: 강상현, 2000) 등에 집중하였다. 또한 초기의 연구 중에는 온라인포르노(예: 우지숙, 1999; 유의선, 1999)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염려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하는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인터넷을 하나의 세계 내지는 시스템으로 본 연구가 있었다. PC통신이 가족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권혁남 등, 1998)나 네트워크 게임을 중심으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논의한 라도삼(1999)의 연구가 그것인데 연구 동향의 시간적 흐름 상 가장 혁신적인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학계에서의 PC통신에 대한 관심은 '94년경부터 관찰되지만(예: 김유정, 1994) 이후 '99년경에 이르기까지 다른 영역보다는 각 대학의 석사 학위논문을 주로해서 나타난다(예: 김영화, 1995; 임현경, 1996; 김성훈, 1998). 그래서 인터넷 기술 발전의 단계로서는 '96-'98년의 기간이 PC통신에서 인터넷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데 반해, 인터넷 연구가 진행되어온 학문적인 단계로서는 '98-'00년 사이가(학술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과도기적인 기간으로 보여진다. 관심이 PC통신으로부터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는 연구의 초점이나 연구대상에서 PC통신과 인터넷의 혼재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시기별 연구의 추이에서도 발견되는 바, PC통신의 게시판과 인터넷 및 사이버공간을 동일시 또는 혼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예: 윤선희, 2000; 윤영철, 1998; 박선희, 2000).

인터넷 상에서 일어난 새로운 의사소통 양식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수정을 제안한 논문으로는 시민의 의제설정 과정을 모델화한 김학수와 오연호(2003) 역시 역의제설정 과정을 논의한 김성태와 이영환(2006)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3기로 분류한 시민저널리즘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연구로 진행되었다고 보여진다.

〈표 4〉 인터넷 관련 연구의 대주제 추이

연 도		대주제				전 체
		인터넷 자체 기술, 역사, 제도	기존미디어와의 관계	사회적 관습 현상의 변화, 효과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새로운 이해 해석 이론적 논의	
1998	빈 도	0	0	2	0	2
	연도의 %	.0%	.0%	100.0%	.0%	100.0%
1999	빈 도	4	2	1	0	7
	연도의 %	57.1%	28.6%	14.3%	.0%	100.0%
2000	빈 도	2	3	5	0	10
	연도의 %	20.0%	30.0%	50.0%	.0%	100.0%
2001	빈 도	13	2	2	0	17
	연도의 %	76.5%	11.8%	11.8%	.0%	100.0%
2002	빈 도	16	13	6	0	35
	연도의 %	45.7%	37.1%	17.1%	.0%	100.0%
2003	빈 도	17	4	5	1	27
	연도의 %	63.0%	14.8%	18.5%	3.7%	100.0%
2004	빈 도	22	6	2	0	30
	연도의 %	73.3%	20.0%	6.7%	.0%	100.0%
2005	빈 도	20	4	4	0	28
	연도의 %	71.4%	14.3%	14.3%	.0%	100.0%
2006	빈 도	19	2	6	1	28
	연도의 %	67.9%	7.1%	21.4%	3.6%	100.0%
2007	빈 도	24	9	5	0	38
	연도의 %	63.2%	23.7%	13.2%	.0%	100.0%
전 체	빈 도	137	45	38	2	222
	연도의 %	61.7%	20.3%	17.1%	.9%	100.0%

($\chi^2=40.99$, $df=27$, $p=.04$)

이를 보다 세부적인 주제 분류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다음 세 표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인터넷 자체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수용자 중심의 연구이다. 이용동기나 이용패턴 내지는 행태에 관한 연구와 이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수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인데 이 둘은 합쳐서 인터넷 자체에 관한 연구 중 34.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 효과에 관한 연구와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매체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대주제1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빈도	전체비율	대주제중 비율
인터넷 자체, 기술, 역사, 제도	기술, 미디어 자체의 진화	4	1.8	2.9
	콘텐츠, 텍스트, 담론	21	9.5	15.3
	산업	11	5.0	8.0
	사회문화	5	2.3	3.6
	법제	15	6.8	10.9
	이용동기, 행태	47	21.2	34.3
	이용 효과, 결과	26	11.7	19.0
	기타	8	3.6	5.8
	합계	137	61.7	100.0
합계	222	100.0		

그 다음으로 기존미디어와 인터넷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중에는 단연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46.7%)를 차지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판지일보와 중앙일보의 디지털화를 필두로 대안매체의 등장이나 뉴스 이용 행태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영화나 방송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신문이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표 6〉 대주제2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빈 도	전체비율	대주제 중 비율
기존미디어와 의 관계	저널리즘, 뉴스(여론포함)	21	9.5	46.7
	방송영상	8	3.6	17.8
	다중매체비교분석	7	3.2	15.6
	수용자	7	3.2	15.6
	기 타	2	.9	4.4
	합 계	45	20.3	100.0
합 계		222	100.0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정치분야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36.8%). 정치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한 것 역시 기존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속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이 별도의 하부 영역으로 인정될 만큼 활발한 연구 영역이었음의 산물이다.⁹⁾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변화를 살핀 것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매체에 관련된 연구 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직 연구의 양이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분리되어있던 대인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매스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융합되면서 연구도 융합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9) 더불어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 정보의 사회적 전파나 그 영향이 현실정치 속에서 아직 발전하지 않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우리의 연구가 미국 학계의 연구 주제 추이의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본다.

〈표 7〉 대주제3의 소주제별 연구 분포

		빈 도	전체비율	대주제 중 비율
사회적 관심 현상의 변화, 효과	정 치	14	6.3	36.8
	경제-광고효과	2	.9	5.3
	사 회	8	3.6	21.1
	문 화	8	3.6	21.1
	통신,대인컴	5	2.3	13.2
	기 타	1	.5	2.6
	합 계	38	17.1	100.0
합 계		222	100.0	

연구의 추이를 종합해 보자면 인터넷 자체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 활발하고 다소 줄어드는 동안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매체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저널리즘이라는 분야에 국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존 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관심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98년에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단 2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미시적으로 웹광고의 효과를 살핀 권희정(1998)과 컴퓨터 통신의 도입이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에 관한 권혁남 등(1998)의 연구였다.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2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거의 2001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제 3기에서 나타나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그 이후 2006년까지 몇 년간 연구의 양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2007년에는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90년대 말부터 PC통신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비교적 폐쇄적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다가 2000년대 초반 카페 붐이나

온라인 저널리즘 영역의 획기적인 변화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관심 속에 들어간 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인터넷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이론들을 재해석하거나 비판하는 연구는 이제 막 단초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반적으로 다변화되어있는 모습을 보인다. 가장 연구가 많은 것은 그 대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인터넷 일반에 관한 것인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활발히 진행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뉴스나 저널리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였다. 연구대상이 본격적으로 다변화 추이를 보이는 것은 대략 2003년-2004년부터라고 보여진다. 블로그, 이메일, 메신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4년부터 처음 등장하였고 2003년에는 커뮤니티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더불어 인터넷 토론에 관한 연구도 최근 활발한 대상인데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의 온라인 뉴스에 대한 관심이 중반부터 점차 줄어들고 연구대상이 되는 인터넷 활동이 보다 다변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 편 게임과 홈페이지의 경우 아주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2000년 이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 연도별 연구대상

연도		복 수 코 당												전 체	
		블로그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토론	게임	뉴스신문	포털	UCC/ 동영상(인터넷 영화)	인터넷 일반/전체	홈페이지 (개인조직)	온라인 쇼핑		기타(인터넷 광고)
1998	빈 도	0	0	0	0	0	0	0	0	0	1	0	0	1	2
	연도의 %	.0%	.0%	.0%	.0%	.0%	.0%	.0%	.0%	.0%	50.0%	.0%	.0%	50.0%	00.0%
1999	빈 도	0	0	0	0	1	0	1	0	0	1	0	0	4	7
	연도의 %	.0%	.0%	.0%	.0%	14.3%	.0%	14.3%	.0%	.0%	14.3%	.0%	.0%	57.1%	00.0%
2000	빈 도	0	1	0	0	2	1	1	0	0	2	2	0	1	10
	연도의 %	.0%	0.0%	.0%	.0%	20.0%	10.0%	0.0%	.0%	.0%	20.0%	20.0%	.0%	10.0%	100.0%
2001	빈 도	0	0	0	0	0	1	5	0	3	4	1	0	3	17
	연도의 %	.0%	.0%	.0%	.0%	.0%	5.9%	9.4%	.0%	7.6%	23.5%	5.9%	.0%	17.6%	100.0%
2002	빈 도	0	2	0	0	2	0	10	0	0	17	2	0	2	35
	연도의 %	.0%	5.7%	.0%	.0%	5.7%	.0%	28.6%	.0%	.0%	48.6%	5.7%	.0%	5.7%	100.0%

연도		복 수 코 당													전 체
		블로그	이메일	메신저	커뮤니티	토론	게임	뉴스신문	포털	UCC/ 동영상(인터넷 넷영화)	인터넷 일반/ 전체	홈페이지 (개인,조직)	온라인 쇼핑	기타(인터넷 광고)	
2003	빈도	0	0	0	1	1	1	8	0	0	8	3	1	4	27
	연도의 %	.0%	.0%	.0%	3.7%	3.7%	3.7%	29.6%	.0%	.0%	29.6%	11.1%	3.7%	14.8%	100.0%
2004	빈도	1	1	1	1	0	1	10	0	0	12	1	0	2	30
	연도의 %	3.3%	3.3%	3.3%	3.3%	.0%	3.3%	33.3%	.0%	.0%	40.0%	3.3%	.0%	6.7%	100.0%
2005	빈도	2	0	1	2	3	0	5	0	0	12	2	0	1	28
	연도의 %	7.1%	.0%	3.6%	7.1%	0.7%	.0%	17.9%	.0%	.0%	42.9%	7.1%	.0%	3.6%	100.0%
2006	빈도	2	0	1	2	5	2	9	0	0	6	1	0	0	28
	연도의 %	7.1%	.0%	3.6%	7.1%	17.9%	7.1%	32.1%	.0%	.0%	21.4%	3.6%	.0%	.0%	100.0%
2007	빈도	5	0	0	1	3	4	6	1	3	10	0	1	4	38
	연도의 %	3.2%	.0%	.0%	2.6%	7.9%	10.5%	15.8%	2.6%	7.9%	26.3%	.0%	2.6%	10.5%	100.0%
전체	빈도	10	4	3	7	17	10	55	1	6	73	12	2	22	222
	연도의 %	4.5%	1.8%	1.4%	3.2%	7.7%	4.5%	24.8%	.5%	2.7%	32.9%	5.4%	.9%	9.9%	100.0%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전체적으로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으로 보았을 때 양적인 연구방법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세부 연구방법 중에서도 절반 가까운 연구가 서베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내용분석과 문헌연구(판례분석 포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베이 방법의 집중도는 다소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편 문헌연구와 내용분석의 경우 2002년 이전에는 활발하다가 2003년부터는 감소하고 있으며 대신 2003년 이후로는 실험연구 방법이 꾸준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연구방법들은 뚜렷이 연도에 따른 추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 방법면에서 초기 연구를 평가하자면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용과 충족 이론 등을 응용한 이용동기 조사 등이 많았고 혹은 문헌조사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소고를 구성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기술적, 상황적 특성들이 연구의 대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겠다. 전체적으로 문헌연구와 서베이,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방법은 점차 실험이나 인터뷰, 내러티브 분석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이 더해지면서 다각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표 9〉 연구방법의 추이

연 도		복 수 코 령									전 체
		문헌연구(판례분석포함)	2차자료분석(site traffic 등의 분석포함)	서베이	실 험	참여관찰/에스노그라피	FGI/일대일 면접/심층인터뷰	연결망분석	내용분석	기타(내러티브분석)	
1998	빈 도	0	0	0	2	0	0	0	0	0	2
	연도의 %	.0%	.0%	.0%	100.0%	.0%	.0%	.0%	.0%	.0%	100.0%
1999	빈 도	5	0	1	0	0	0	0	1	0	7
	연도의 %	71.4%	.0%	14.3%	.0%	.0%	.0%	.0%	14.3%	.0%	100.0%
2000	빈 도	3	1	2	0	0	1	0	3	0	10
	연도의 %	30.0%	10.0%	20.0%	.0%	.0%	10.0%	.0%	30.0%	.0%	100.0%
2001	빈 도	3	2	5	0	1	1	0	3	2	17
	연도의 %	17.6%	11.8%	29.4%	.0%	5.9%	5.9%	.0%	17.6%	11.8%	100.0%
2002	빈 도	6	3	9	1	0	1	0	14	1	35
	연도의 %	17.1%	8.6%	25.7%	2.9%	.0%	2.9%	.0%	40.0%	2.9%	100.0%
2003	빈 도	1	1	15	2	0	3	0	3	2	27
	연도의 %	3.7%	3.7%	55.6%	7.4%	.0%	11.1%	.0%	11.1%	7.4%	100.0%

연 도		복 수 요 인									전 체
		문헌연구 (판례분석 포함)	2차자료분석 (sitetraffic등 의 분석포함)	서베이	실 험	참여관찰/ 에스노그래피	FGI/일대일 면접/심층인터뷰	연결망분석	내용분석	기타 (내러티브 분석)	
2004	빈 도	4	0	16	2	0	1	0	6	1	30
	연도의 %	13.3%	.0%	53.3%	6.7%	.0%	3.3%	.0%	20.0%	3.3%	100.0%
2005	빈 도	2	3	16	2	0	1	0	4	0	28
	연도의 %	7.1%	10.7%	57.1%	7.1%	.0%	3.6%	.0%	14.3%	.0%	100.0%
2006	빈 도	3	0	14	3	0	1	0	6	1	28
	연도의 %	10.7%	.0%	50.0%	10.7%	.0%	3.6%	.0%	21.4%	3.6%	100.0%
2007	빈 도	3	1	23	3	0	2	1	4	1	38
	연도의 %	7.9%	2.6%	60.5%	7.9%	.0%	5.3%	2.6%	10.5%	2.6%	100.0%
전 체	빈 도	30	11	101	15	1	11	1	44	8	222
	연도의 %	13.5%	5.0%	45.5%	6.8%	.5%	5.0%	.5%	19.8%	3.6%	100.0%

($\chi^2=112.13$, $p=.00$)

4) 기타

연구자의 수는 단독연구가 142건 (64%), 2인연구가 60건 (27%)으로 3인 이상의 공동연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연구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동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의 성격이 기술적이냐 분석적이냐에 관해서도 시간의 추이에 따라 기술적인 연구가 감소하면서 분석적 연구문제를 가진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술적인 연구문제가 70건 (31.5%)이고 분석적인 연구문제가 152건 (68.5%)이다. 2001년까지는 기술적인 연구문제가 많았으나 2002년부터 분석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한 연구가 더 많았다.

5. 논의 및 결론

1)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의 인터넷 연구 추이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PC통신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관련 연구의 시작은 늦은 편이었다. 특히 매체변화에 민감한 커뮤니케이션학의 속성을 볼 때 기존 미디어 연구가 지속되는 관성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타 사회과학 분야와 비교해서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의 PC통신의 연구가 무척 앞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9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연구는 인터넷의 확산과 진화와 더불어 그 시기적인 특징을 연구에서도 발 빠르게 담아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기별로 연구경향이 한국사회의 인터넷 기술과 문

화가 발달되는 실질적인 경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나 게시판, 혹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를 거쳐 4기에 이르러서는 연구주제나 대상이 다양화되고 구체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서베이 중심의 조사방법에 오히려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적인 연구문제보다 분석적인 연구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인터넷 자체를 조망하는 연구보다는 그 효과나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론적으로 재조망하려는 시도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인터넷 관련 논문을 검토하면서 이상에서 양적으로 분석된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가자에 따라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겠지만 PC통신이 시작된 것이 이미 80년대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체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인터넷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여타의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인터넷 관련 연구와 감히 비교를 해보자면 (참조 DiMaggio, 2001)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관심의 주가 되었던 유토피아/디스토피아식 이분법적 관점은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초기 연구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그리고 미시적인 연구들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향은 주로 기존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주로 활발히 인터넷 관련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 말의 PC통신에 대한 연구로부터 이론적으로는 속의민주주의나 정치대화 연구에 관한 연구가 하나의 맥을 이루었고 현재까지 참여민주주의문화나 사회자본,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의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폭으로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제 3기 (99년에서 03년)에서 주로 보여지는 연구 경향으로서 2000년을 전후하여 미디어의 대안성에 주목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으로는 공공저널리즘 혹은 시민저널리즘의 연장선 상에서 기존의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의 맥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혹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개념과 함께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여론이라는 영역을 공집합으로 저널리즘의 영역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중첩되는 지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역의제 설정 등 이론적 논의로 진화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기대되는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제 4기에 돌입해서는 사회연결망 사이트 급성장, 동영상 유통확산, 상업적 관심 증대, 디지털문화의 일반화 및 대중화 등의 추세에 발맞추어 연구주제나 대상이 보다 다양화하고 있는 단초를 보이고 있다.

연구방법의 측면에 있어서는 혁신성이나 다양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서베이와 내용분석을 함께 한다든지 혹은 서베이를 인터뷰를 병행한다든지 하는 다중방법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 시기에는 UCC (유튜브, 판도라TV) 나 미니홈피 등 구체적인 서비스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하게 주목받아야 할 하나의 흐름은 인터넷 혹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한 단계 더 심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미디어의 출현은 커뮤니케이터의 숫자, 동시성, 즉시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

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이전에 제한된 미디어를 통한 상황에서 당연시되어왔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이해들이 결국 매체의 제한에 따른 것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대주제로 새롭게 제안했던 항목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새로운 이해나 해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 주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고전적인 휴먼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활발하게 재조망받게 하였고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주목하여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론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은 앞으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2) 제언

이 연구의 주제 측면에서 볼 때 향후의 유사 연구를 위한 제언보다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관련 연구가 취해야 할 방향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인터넷 관련 연구를 개괄하면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나치게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이나 정치학 분야의 관련 연구가 미시적인 연구 결과에 기초하지 않고 거시적인 담론에만 치우쳐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미시적 수준의 결과가 보다 거시적인 이론적 틀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연구의 초기에 분화되지 못하고 정교화되지 못한 연구는 어찌보면 당연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하나의 '전체(the whole)'로 보고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에서 '다루

어지는' 내용의 극히 특수한 일부분을 떼어내어 (가령, 온라인포르노, 인터넷방송 등) 이것이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때 생기는 문제 등을 탐구하는 것이 초기의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이후에 연구가 진화 및 세분화된 경우에도, 소재의 다양화 및 시기별 소재의 변화가 인터넷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연구의 흐름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루어지는 단편적인 소재만이 시기별로 업데이트 되었을 뿐, 각 시기별로 발생한 변화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와 같은 보다 유기적인 설명이 결여된 점이 아쉽다. 가령, PC통신의 연구를 인터넷 연구와 동일시하여, 단순히 A 시기에는 PC통신을 연구하고 B시기에는 인터넷을 연구하거나, 본격적인 인터넷 시기의 연구에서도 앞선 시기에는 인터넷방송/인터넷신문을 연구하고 뒷시기에는 블로그와 UCC를 개별매체로서만 연구하는 연구들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시기별로 많이 퍼져있는 (이용되는) 기술소재들을 취하여, 기존의-오프라인 세계 중심으로 발전해온 커뮤니케이션 연구 관점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즉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PC통신의 소통적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PC통신의 특징적인 문화가 한국사회의 인터넷 문화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한국사회의 인터넷 문화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뒤)들어놓았는지 등, 인터넷을 연구하더라도 한국적 상황에서의 특수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에세이 형태의 회고글만이 있을 뿐,¹⁰⁾ 한국 사회문화의 변화를 아우르는 통시적인 연구와 설명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던 듯하다. 구체적인 기술변화들을 사회문화의 변화들과 연관, 또는 각 기술변화들 상호간의 영향관계 등에 대한 거시적 조망이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10) 최근 PC통신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접하는 초기인터넷이용자(PC통신기부터 시작한)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는 PC통신기를 경험했던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개별적인 정서로서 존재하는 것 같다 (참조: 이정국, 2007; 장여경, 2007).

기존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 전통 속에서도 최근 연구 경향의 미시적 관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2단계 정보유통가설이나 확산이론 등 초기의 매스미디어에 관한 연구가 유기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디어의 위치를 조망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그야말로 이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을 뿐 그 틀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온 작은 부분들만 떼어내어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미시적인 연구경향들이 이어져 내려와 역시 매체의 작동을 사회적인 맥락에서 유리한채 작은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노력이 집중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논문의 평가시스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혁신적인 논의나 연구방법이 시도된 연구보다는 기존 연구를 충실히 이어받아 가설검증의 형태로 완결된 이야기를 담는 논문이 현재의 평가시스템 속에서 더 무난히 통과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연구문제의 틀로부터 벗어난 연구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이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터넷 관련 연구야말로 기존의 논문 평가의 틀로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이끌어질 수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택섭 (1997)이나 황상재와 박석철 (2004)은 기존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이나 개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문제의 틀 속에 인터넷 관련 연구를 국한시킨다면 새로운 연구문제를 발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매체환경이 급변하는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면으로는 기존 이론에 토대를 둔 가설 검증식의 연구보다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면밀하게 기술해주는 연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

때문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기존 연구들과의 연속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의 혁신성과 기존 커뮤니케이션 양식과의 차이에 초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 또한 학술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전체 20%를 상회하는 논문이 인터넷에 할애되었다가 그 이후는 정체 내지는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몇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인터넷의 계속되는 분화와 진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기존의 틀 속에서 혁신적인 연구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학술대회 발표문이나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보다 더 다양하고 틀에 매이지 않은 주제나 방법의 단초를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음을 밝힌다.

■ 참고 문헌 ■

- 강상현(2000).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 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14권 1호
- 강준만(2006). 인간사색: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개마고원.
- 권혁남·나은영·마동훈·박찬일·심재철(1998). 뉴미디어와 일상생활: 컴퓨터 통신의 도입이 가족내 상호작용, 미디어 대치, 수용자 정서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유사실험 연구. 『한국방송학보』, 10, 53~113.
- 권희정(1998). 웹 광고 효과에 미치는 상호작용성의 영향. 『한국언론학보』, 42권 3호, 38~65.
- 김관규(2000). 전자메일과 다른 대인매체의 기능적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4권 2호.
- 김성태·이영환(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 파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5.
- 김성훈(1998). PC통신 토론방의 격화(flaming)가 참가자의 내집단선호, 의견개진, 및 토론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1995). PC통신의 이용행태와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정(1994).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서의 PC통신 활용에 관한 분석. 『방송연구』, 39호, 231~256.
- 김학수·오연호(2003). 인터넷신문을 통한 일반시민의 의제수립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4호, 60~82.
- 라도삼(2000). 가상공간의 전경과 삶의 단편들; ‘리니지’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4호, 115~149.
- 박선희(2000). 컴퓨터 매개 정치의 패러독스: 진자 민주주의의화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61~101.
- 박성호(1999). 인터넷 방송의 방송학적 의미와 전망. 『한국방송학보』, 13권, 227~265.
- 오택섭(1997).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호, 6~28.
- 우지숙(1999). 포르노그래피 규제에 대한 담론을 통해 본 사이버스페이스의 여성문제. 『한국언론학보』, 44권 1호, 244~286.

- 우형진(2005). 커뮤니케이션학의 학문적 정체성: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국내 인터넷 연구의 발전적 모색: 1995~2005년까지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게재된 인터넷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1권 1호, 332~366.
- 유의선(1999). 사이버 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소고: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의 법적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5호, 187~220.
- 윤선희(2000). 인터넷 담론과 청소년 문화.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81~108.
- 윤선희(2001). PC방과 네트워크 게임의 문화연구: 스타크래프트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316~349.
- 윤영철(1998). 대안적 매체로서의 PC통신: ‘한총련’에 관한 토론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1호, 184~219.
- 이정국(2007.1.31.). PC통신 ‘스타’들이 말하는 ‘그때가 그리운 이유’. 한겨레.
- 임현경(1996). PC통신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형성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통신동호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여경(2007.6.29.). 그 많던 검은 리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87-’07, 일상의 혁명 ②] PC통신에서 웹2.0까지. 프레시안.
- 최영(1999). 인터넷방송의 특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2권, 299~335.
- 황상재·박석철(2004). 국내 인터넷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 주제와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8권 2호, 68~92.
- 황용석(2006). 한국 온라인저널리즘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에 대한 메타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2권 1호, 128~169.
- Allen, M., Mabry, E., Mattrey, M., Bourhis, J., Titsworth, S., & Burrell, N.(2004).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distance learning: A comparison using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54(3), 402~420.
- Chung, W. J., Jeong, J. K., Chung, W. S & Park, N. S.(2005). Comparison of current communication research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view of Communication*, 5(1), 36~48.
- Crowley, D.(2002). Where are we now? Contours of the Internet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7(4), 469~507.
- DiMaggio, P., et al.(2001). Social implications of Interne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 307~336.

- Emmers-Sommer, T., & Allen, M.(1999). Surveying the effect of media effects: a meta-analytic summary of the media effects research i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5(4), 478~497.
- Flichy, P.(2002). New media history. In *Handbook of New Media*. Lievrouw, L. & Livingstone, S. Sage Publications.
- Kim, S. T., & Weaver, D.(2002). Communication research about the internet: a thematic meta-analysis. *New Media & Society*, 4(4), 518~541.
- Kluver, R., & Yang, C.(2005). The Internet in China: A meta-review of research. *The information society*, 21, 301~308.
- McGuire, A. J.(1986). The myth of massive media impact: Savagings and salvagings. In G. Comstock(Ed.). *Public communication and behavior*, 1, 173~257.
- Meyrowitz, J.(1997). Shifting worlds of strangers: Medium theory and changes in 'them' versus 'us'. *Sociological Inquiry*, 67(1), 59~71.
- Ong, W.(1988).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New York, Methuen.
- Paik, H., & Comstock, G.(1994). The effects of television violence in antisocial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21, 516~546.
- Postman, N.(1998). *Five things we need to know about technological change*. speech delivered in Denver, Colorado, March 27, 1998.
- Rheingold, H.(1993). *The virtual community(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MIT Press.
- Royal, C.(2005). A Meta-analysis of journal articles intersecting issues of internet and gender.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 Communication*, 35(4), 403~429.
- Wellman, B.(2001). Physical place and cyber pl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2), 227~279.
- Wimmer, R. D., & Dominick, J. R.(2000).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6th ed)*. Belmont, Wadsworth.

논문 최초 투고일 2008년 1월 15일

논문 게재 확정일 2008년 2월 16일

ABSTRACT

**A Meta-Analysis of Internet-Related Reserach in
Scholarly Journals in Communication**

Eun Mee Kim

College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Eun Kyung Na

Media Research Team, Korea Press Foundation

Internet, digital media, CMC, and the others have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key words not only within the discipline of communication research but also in popular publications and conversations. The change has been especially dramatic and notable in Korea. This research attempts a meta-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with Internet-related phenomena as the object of study in published in major communication journals. In addition it overviews the social and cultural issues that have evolved as the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s have developed in Korea. throughout the recent years. The study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n the current research trends, less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how social discourse on the technology corresponds with its actual deployment in a society.

Key words: communication studies, theory and methodology, internet, social effect, meta-analysis.